



임실군, 화재피해 가구 새 보금자리 마련

임실군 삼계면에 사는 화재 피해 가구가 119 안심 행복하우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군은 전북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119 안심 행복하우스 사업에 올해 2월 화재 피해로 집을 잃은 임실군 삼계면 오OO 씨 가구가 제6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인 31일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가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8호 119 행복하우스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조봉암 행정부지사와 박정규 도의원, 최민철 소방본부장, 정일윤 임실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하우스 건립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오 씨는 갑작스러운 주택화재로 집이 전소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피해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중한 기부로 마련된 119 안전기금으로 주택 신축 작업을 완료했다.

119 안전기금은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의 자활 지원과 사회취약계층 안전 강화를 실현하고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화재 피해 주민에게 생활 안정 자금 주거 복구,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119 안심 행복하우스 사업 지원 소식에 임실군과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 참여하여 도움이 손길을 전했다.

여러 업체에서도 현금과 물품을 후원해 주고 재능기부에 아낌없이 동참했다.

오 씨는 "화재로 집을 잃고 막막했는데,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개설 10주년 홈커밍데이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학과 개설 10주년을 맞아 졸업생들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김성은 동문 회장은 "교수님들의 후학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간호학부의 졸업생들은 역량이 있는 간호사로 각자의 맡은 곳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다"며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간호학부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졸업생들도 동문회 활성화와 장학사업,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동문회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비전대 간호학부는 현재까지 교수 동문, 대형병원 등 산업체로부터 9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김재현 간호학부장은 "올해는 간호학부가 SUNRISE 2080 10대 비전을 선포하는 등 새미래 도약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선배와 후배가 matrix로 연결돼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연합해 간호학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둘레, 일자리지원 실전창업교육 수료식

정읍시와 사단법인 둘레는 지난날 28일 예비창업자 대상 실전창업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8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25회 과정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202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창업을 위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사업 아이템 발굴과 컨설팅 구성, 고객 발견을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멘토링이 진행되어 단계별 사업계획을 실현해 창업의 실행 주제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사단법인 둘레 이사장(대표 안수용)은 이번 창업 교육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창업문화 확산과 우수한 창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배우 김응수, 무주 명예군민 됐다

청원위원회서 명예군민증서 수여 받아

배우 김응수씨(61)가 무주군 명예군민이 됐다. 황인홍 군수는 1일 전통문화의집에서 열린 11월 청원위원회 회의에서 배우 김응수 씨에게 명예군민증과 증서를 수여했다.

명예군민은 무주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으로, 군은 지난 9월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우 김응수 씨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했다.

김 씨는 이날 위원회에서 2030세대에게 재조명되고 있는 영화대사, '물고 더블로 가'를 패러디한 '물고 더블로 살아라'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진행했으며, 직장 내 구성원들의 소통 방법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홍보대사로서 우리 무주군 홍보 방안 등을 공유했다.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김 씨는 "무주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돼 너무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주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려 군의 위상을 높이고 무주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직장교육



평소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 인지도가 높은 배우 김 씨는 무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지대한 방송인이다. 김 씨와 무주의 인연은 2015년부터 시작돼 대치리 서면마을에서 열린 소니나무 작은음악회를 직접 기획하고 2019년 무주벌꽃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올해 9월, 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 씨는 군 홍보영상 제작, 지난 10월 삼도봉행사, 무주벌꽃축시장 농·특산물 특화장터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군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버들지구 농촌 새마을사업 준공

순창군이 11월 1일 유등 버들지구에서 최영일 순창군수, 오은미 도의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농촌 새마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버들지구 새마을사업 추진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주관한 이날 준공식은 최근 국유지 임대원 참사에 대한 애도와 위로로 시작하는 등 국가 애도기간임을 감안하여 농악 등 공연을 취소하고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됐다. 조용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내빈소개와 국민의례, 참사에 대한 위로 및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새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안전과 위생 등 중요한 생활인프라 확충과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32회 전북도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 개최

제32회 전라북도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가 지난날 29일 전주 흥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전라북도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는 도내 스피치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해 좋은 관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으며,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피치연맹회 전북분부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김양욱 대회본부장, 손명엽 대회총괄위원장, 김만기 대회재전위원장, 황금석 대회추진위원장, 박영춘 대회조직위원장, 김기수 대회준비위원장 등 임원들과 스피치인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합동특강, 문화예술공연, 각 대학 스피치과정별 장기시합대회, 행운유첨첨,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장기시합 대회 입상자로 서희옥(우석대 평생교육원)씨가 대상을 수상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 황행숙(과학대 평생교육원), 우수상에 김금란(전북대 평생교육원), 우등상에 박다간(원광대 평생교육원), 장려상에 황금석(교육대(주) 평생교육원), 인기상에 이호지(교육대(야간) 평생교육원)씨가 차지했다. 이어 진행된 화합상 시상식에서 전주교육대 평생교육원



주간과정이 대상을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이 화합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또한 공모포상 수여식에서 황금석 대회추진위원장 김만기 대회재전위원장, 황호연 대회후원위원장이 공로패를, 신정숙 과학대원우회 부회장, 오명근 전주교육대 원우회장, 박은희 한국어고교고장구 효자분원장, 문정만 군산대 원우부회장 임화경 교육대 원우 총무, 김정리 우석대 원우 총무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주니어 선화대상 수상자, 어린이재단에 성금기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제5회 서동선화 주니어 선화대상'에서 선화대상을 수상한 송지민(7)양이 대상 상금 5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송지민양은 지난 10월 1일 익산시가 주최한 익산 서동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제5회 서동선화 주니어 선화대상'에서 양정민 노래와 춤은 물론 목소리 나는 자기소개와 '서동축제'로 4행시를 짓는 등 무대 위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송양의 부모는 "평소 지민아에게 어려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을 살피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준 적은 있지만, 지민아가 친구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신평초-임실초, 가족한마당 큰잔치... 2차 교환학습 실시

신평초등학교(교장 전은희)와 임실초등학교(교장 한미연)가 2차 교환학습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평초와 임실초의 교환학습은 두 학교가 공동통학구역 어울림학교로 지정된 지난해 시작돼 올해 2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교환학습에는 임실초 학생 10명과 학부모 13명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환학습은 신평초와 임실초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어울림학교 운영 과정도 안내하고자 두 학교의 학부모를 함께 초청해 '신평초·임실초 가족한마당 콘서트'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신평초가 자랑하는 특색 교육활동인 내비 골프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문골프 강사의 지도로 골프 기본자세 및 드라이브 스윙과 퍼팅 레슨을 받았으며, 필드에 직접 나가 가족대항 내비골프대회에도



참여했다. 이어 가족 레크리에이션과 연극 '뽕 굽는 포포'까지도 관람했다.

행사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임실초 가족들은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 준 신평초에 너무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교육문화회관-지역아동센터, 협력 강화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양서연)은 1일 시청각실에서 군산 지역아동센터협의회(협회장 채현주)와 업무협의회 및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의회 및 사전설명회에는 군산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 8월부터 상호교류 및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두 차례 논의해왔고, 이번 세 번째 업무협의회를 통해 202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기초 독서지도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1박2일 가족여행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아동 및 가족 40여 명과 지난날 29일과 30일 1박 2일 통영과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가족여행은 아동의 안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관내 지역사회의 후원(e-마트남원점, 내일관광)이 풍성한 여행 일정으로, 대부분 한 부모나 초등학교를 앞둔 아동으로 선정되었으며, 가족들에게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케이벨라 탐승과 아쿠아리움 및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도시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남원시 차비와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들에게 가족여행의 기회를 줌으로써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남원시 죽항동(동장 허인선)은 1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4차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참여자가 남은 기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원소방서 소방관을 초빙해 화재대피 요령과 119 신고요령,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고, 올해 사업 종료시점 안내 및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일정 뿐만 아니라 기초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안내했으며,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는 12월에 모집할 예정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동지사협, 사랑의 쌀 20kg 49포 지원

남원시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경숙, 고재운)는 지난날 31일, 관내 저소득 주민과 경로당 20개소에 올해 산동면에서 수확한 햅쌀 20kg 49포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로당 식사가 방역수칙 완화로 재개함에 따라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복지향상에 증진기 위한 것으로,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된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통해 '사랑의 쌀 나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김경숙 산동면장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쌀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